



# 마지막 회, 밀실에서 빈 조희성 구세주님의 생활

## 하늘의 사람 앞에서 항상 죄인의 자세로 움직이셨다

### 생각이 돌아가는 것을 즉시 아시는 해와이긴자

해와이긴자가 하루는 병창고에서 바나나를 꺼내서 주는데 바나나가 오래되어서 시커멓게 되었다. 그래서 속으로 이걸 어떻게 먹으라고 그러나 하고 생각하는 순간 갑자기 막 때리는 것이었다. '왜 때리시나' 하고 생각하자 "내가 바나나를 주는 순간 시커멓게 된 것을 어떻게 먹으라고 주느냐고 생각하지 않았느냐"고 하셔서 그 순간 '아차 내가 그랬지'라고 내 생각을 풀이켜 알게 될 정도였다. 해와이긴자는 이처럼 사람들의 돌아가는 생각을 즉각 즉각 다 알아채셨다.

해와이긴자는 나하고 전봉국 집사와 결혼을 시켰는데 그 이유는 우리 어머니가 연로하게 되시니까 손자라도 있으면 밀실에서 계속 있지 않겠느냐 하여 그래서 결혼시킨 것이라고 하셨다. 해와이긴자의 말씀이 법이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불순종에 떨어지게 된다.

해와이긴자는 죄를 지으면 사정없이 주변에 있는 물건으로 마구 때렸다. 빨래판이 보이면 그걸 집어서 때리고, 부지깥이가 보이면 부지깥이로, 몽둥이가 보이면 몽둥이로 때렸다. 그걸로 맞으면 아프기는 한데 전혀 탈이 나지는 않았다. 뾰족한 우산으로 죽으라고 찔러도 그때만 아팠지 탈이 나지 않았다. 그래서 맞아보면 해와이긴자가 하나님의 신을 모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해와이긴자에게 맞고 나면 몸이 가벼워지는 것이었다. 그것은 해와이긴자가 마귀를 죽여주시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심지어는 때려주셨으면 하고 바랄 때도 있었다.

해와이긴자는 성격이 매우 깨끗하고 깔끔하신 분이셨다. 그래서 청소가 안된 곳이 있으면 난리가 났다. 김을 때

라고 해서 김을 때 때, 잡초를 뽑지 않고 넘어가면 그걸 다 아셨다. 그러고는 그걸 마음속에 탁 찍어서 기억하고 계셨다. 밀실 안에서도 청소를 깨끗이 했는데 민실 지나가다가 낙엽이 떨어진 것이 있어서 안 줌고 지나가면 그걸 어떻게 아셨는지 지적하여 말씀하셨다. 이렇게 몇 가지 잘못된 것이 쌓이게 되면 해와이긴자는 한번 잘못된 것이 있을 때 그걸 지적하시면서 내가 잘못하고 죄를 지은 것을 낱알이 알려주시면서 때로 때리셨다.

나도 빨래판으로 죽어라 맞고 쓰러졌는데 일어나서 혹시 멍이 들었지 않을까 해서 거울을 쳐다보면 멍조차 들지 않았다. 그리고 맞을 때뿐이지 그 다음에는 전혀 아프지 않았다. 밀실 식구들이 그렇게 많이 때를 맞았는데 탈이 난 사람을 한 명도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분이라는 것을 이로서 알 수 있는 것이다.

나는 해와이긴자로부터 밀실에서 쫓겨난 적이 있다. "이년아, 나가라"고 해서 밀실을 나왔는데 해와이긴자가 잠드신 저녁때에 몰래 방에 들어가서 자고 있으니까 한 사람이 와서 해와이긴자가 밀실에서 나가라고 하신다고 하셔서 그 길로 밀실을 나왔다. 돈도 없고 해서 걸어서 부평에 있는 오빠집에 가서 하루 자고, 그 다음 날 아침에 해와이긴자가 밀실에 나오실 때쯤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다. 해와이긴자는 "넌 아직 회개가 덜 되어, 안돼"라고 하셨다.

그래서 그 다음날도 그맘때쯤 해와이긴자를 뵈고 "잘못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또 회개가 덜 되었다고 안 된다고 하셨다.

그래서 셋째 날이 되었는데 그 날은 '오늘 해와이긴자에게 잘못했다고 말씀드려서 용서를 못 받으면 그냥 세상으로 나가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해와이긴자를 뵈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했더니 웃으면서 들어가라고 하셨다. 해와이긴자는 내 마음을



해와이긴자는 죄를 지으면 사정없이 때리셨지만 그 때를 맞을 때 오히려 은혜가 되어 때를 맞아보면 해와이긴자가 하늘의 사람이라는 것을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었다

다 알고 세상으로 나갈 것 같으니까 밀실로 받아주시는 것이었다. 밀실에서 신앙을 하는 식구들에게는 이 결단이 영생하는 길이라고 믿고 있어서 밀실에서 때를 때려도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 조희성 구세주님에 대한 기억

하루는 조희성 주님이 완성자가 되시기 전에 해와이긴자에게 불러서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그런데 주님은 해와이긴자에게 그렇게 조신(惝身)하게 행동하셨다. 발벌 때는 모습으로 보일 정도였다. 다른 사람들은 해와이긴자 방에 들어갈 때 때를 두들기는 했지만 그다지 조심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주님은 매우 조신하게 행동하셨으며, 해와이긴자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머리를 조아리고 항상 죄인처럼 움직이셨다.

주님이 완성자가 되신 후에 역곡에 나가서 전도하실 때 당시 밀실 식구들

은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다. 나도 전혀 몰랐는데 해와이긴자는 주님이 잘못된 게 있으면 김육자 권사 및 주님과 연결된 사람들을 막 때렸다. 같이 연결된 사람은 하나이므로 한 사람이 잘못해도 다 같이 죄가 되기 때문에 혼을 내셨던 것이다.

주님이 이긴자가 되신 날 해와이긴자는 모두 모이라고 하시더니 의자를 두 개를 놓았다. 하나는 자신이 앉고, 다른 하나에는 주님을 앉혔다. 그리고는 "네가 이긴자가 되었다"고 하셨던 것이다. 이긴자가 되었다고 사진도 같이 찍었다. 해와이긴자는 사진을 많이 찍었지만 정작 자신의 사진은 절대 보여주지도 않으셨고, 갖고 있지도 못하도록 하셨다.

밀실 생활은 궁핍한 생활이었지만 서울 식구들이 현금을 많이 냈고, 나머지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생활을 했다. 서울식구들이란 흥 장로라는 사람과 해와이긴자의 친척들이었다. 그렇게 밀실은 운영되었다.

조희성 구세주님께서 역곡에 승리제단을 세워 인류 구원 사업을 해나가시던 중 밀실 식구들을 전도하여 승리제단으로 나오게 하시고, 나도 그때 제단에 나온 후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다. 보광하신 구세주님은 사람이 아닌 신

이므로 언젠가 전 세계 인류가 모두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 믿고 있다. 그때까지 생명을 걸고 이 길을 가야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한다.\*

김동분 권사 / 본부제단

### 해와이긴자께서 조희성님에게 이긴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실 때의 간증

이 사람이 밀실의 연단과정에서 교회회를 몽땅 전도한 후 기분이 좋아서 밀실로 돌아왔는데 밀실 대문 밖에서 해와 이긴자가 "좋아하는 음란죄를 진 저 새끼 당장 내쫓아라!" 하시는 말을 듣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전도가 되어 좋아하는 것도 죄가 된다면 어저 사람으로서 이 길을 갈 수 있겠나이까?" 하며 대성통곡을 하며 울었던 것이다. '사람으로서 누가 이 길을 가겠나이까? 아무리 해도 이제는 더 이상 되질 않으니 차라리 나는 이 세상을 하직 하겠나이이다.' 하는 마음을 품고 목매달아 죽을 결심을 했던 것이다.

근처의 아카시아 나무 가지에 목을 매달기로 마음먹고 속소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울면서 목매달 끈을 찾는 데 영모님이 나타나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왜 그래!" 하면서 이 사람의 손을 붙잡고 목을 놓고 우시는 것이었다. 이 사람은 너무 죄송스러워서 "제가 또 실수를 꺼져 드렸군요. 죄송합니다." 하면서 같이 목을 놓고 있는데, 영모님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던 것이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셨나 하고 문을 바라봤지만 문은 잠긴 채로 그대로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의 신이, 이 사람이 죽으려고 하는 순간 너무나 급해서 영모님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것이다.

이 사람을 죽지 못하게 하기 위해 친히 하나님께서 영모님의 몸을 빌려

나타나신 것에 대해 감사하게 느끼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는 죽어도 살아도 이 생명을 당신께 바쳐서 일하겠습니다" 하는 심정으로 다시 매달리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러나 한번 마음으로 죄를 지은 것이 6개월 동안의 연단기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새벽 4시부터 밤 12까지 하나님께 집착된 마음으로 중노동을 하는 가운데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1980년 10월 15일, 하나님께서 "이제는 네가 이긴자가 됐다"고 하셨다. 좋아하는 음란죄로 6개월이나 죽을 고생을 한 이 사람은 좋아하는 마음도 없이 그저 '제가 이겼네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기셨지요' 하고 마음속으로 말했던 것이다. 그러니 "또 네가 이겼다"고 하시는 것이었다. '또 이긴 것도 하나님입니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완성자가 되었다"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완성자가 되셨습니다."고 하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 되었다. 이제는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정회함이 없다"고 했다. '하나님이 제게 오셨으니 하나님이 되셨습니다'고 하니 이번에는 "너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지리라. 네가 바라보는 대로 눈 녹듯이 죄가 녹으리라"고 하시는 것이었다.

이렇게 단계별로 하나님께서 모든 전권(全權)을 위임하셨던 것이다.\*

### 격암유록이 전하는 구세진인 정도령의 출현 시기



격암유록 세론시(世論視) 편에는 "서학대치 천운야 천도자생(西學大識 天運也 天道者生)"이라 하여 "서양의 학문이 크게 불일듯이 일어나는 것은 하늘의 운이라.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자는 살리라." 하였으니 이는 조선 말 서양의 기독교와 과학문명이 들어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다.

또한 격암유록 말운론에는 석가지운 삼천년 미륵출세 정씨운(釋迦之運 三千年 彌勒出世 鄭氏運)이라 하여 불경

나오시는데 정씨의 운으로 나온다고 하였다.

물론 여기서의 정씨는 어떤 세상 정(鄭)씨의 후예가 아니라 7수에 3을 더한 10(+3)수의 사람이니 이는 곧 한 일(-)자를 종횡으로 그어서 쓴 하늘의 정(正, 晳)씨로 오시는 분이 진짜 하늘의 정씨 구세주 정도령이라는 것을 격암유록 초장에서 정의하여 놓았다.

鄭氏鄭氏 何鄭氏  
정씨정씨 하정씨  
滿七加三 是鄭氏  
만칠가삼 시정씨  
何性不知 無齋後  
하성부지 무예후  
一字縱橫 眞鄭氏  
일자종형 진정씨



메시아 미륵불께서 백만제단 예배인도시 나타난 감로 이슬성신의 모습

화엄경이나 열반경에서 논하는 것처럼 석가 이후 삼천 년이 지나서 미륵불이

세론시(世論視)에는 또 "크게 바른 의로써 세 번을 변하여 정도를 이루는

## 감로의 도 ⑦

### 제2장. 감로이슬의 주인공



좌측 사진과 시간 차를 두고 나타난 감로 사진

데, 목인 박(朴=木人)씨가 지나간 후에 다음의 사람이 오고, 또 최(崔=山+鳥)씨가 온 후에 기다린 사람이 온다.

이것은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명이니 하늘을 거스르는 자는 망하고 하늘에 순응하는 자는 흥하게 된다."고 예

언하고 있다.

三變正道 義用正大

삼변정도 의용정대

木人飛去 後待人  
목인버거 후대인

山鳥飛去 後待人  
산조버거 후대인

逆天者亡 順天者興  
역천자망 순천자흥

不違天命矣 (世論視)  
불위천명의

이는 곧 불기 삼천 년이 지난 후에 구세진인 정도령이 오시는데 서양 기독교 학문이 불일듯이 일어날 때 구세주 정도령 미륵불이 출현하는 것은 천운이니 크게 바른 의를 사용하여 세 번을 변하여 정도가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다.

본문에서 목인(木人)이나 산조(山鳥)는 세 인물 중의 먼저 오시는 두 분의 성씨를 파자법으로 설명하고 있으니 곧 목인 박태선 영모님과 최(崔)씨로 숨겨놓은 해와 이긴자를 말한다. 여기서 산조(山鳥)가 최씨를 가리키는 피산(山)자에 새 조(鳥)자와 같은 의미인 새 추(雉)자를 대입하여 쓰면 최(山+雉=崔)씨 성이 된다.

이는 해와이긴자(여자 의인)의 남편이 최씨 성이기 때문에 여자의 몸을 숨겨서 그 성씨를 대치하여 놓았으니 역시 비결서는 그 주인공이 출현해야 풀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러한 하늘의 사람과 동시대에 나타난 정치적 인물이 박태선 영모님과 동갑이며 정치적 주인이신 박정희 대통령이요, 그 뒤에 해와이긴자와 동갑으로 오신 분이 잠시나마 대통령직에 올랐던 최규하 대통령이 최씨의 정치적 주인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완성의 정도를 이루시는 분이 급우으로 오신 구세진인 정도령 조희성님이다. 정도령 조희성님의 출현과 함께 정치적 주인은 동갑생인 전두환 전 대통령이 출현하였다. 이처럼 한민족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천손민족의 역사임을 알 수 있다.\*

서보목 승사/ 해동산업 대표